

작은 절 큰 봉사 “감동~”

대구 청통사 보성 스님과 신도들 매주 무료 급식



대구 청통사 보성 스님과 신도들은 5년째 매주 토요일 아침 대구역 광장에서 150여명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총 신도 백여명 남짓, 초하루 법회 참석 신도 20~30여명이 고작인 대구의 작은 사찰 청통사. 그러나 이 절의 자비력은 무한히 크다. 청통사가 매주 토요일 아침 대구역 광장에서 150여명의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

웬만한 도심 속 큰사찰도 매주 무료급식을 이어가지만 쉽지 않은 일. 청통사 주지 보성 스님과 신도들은 2002년부터 5년째 대구역 무료급식을 이어오고 있다.

11월 18일 새벽에도 보성 스님과 신도들은 따뜻한 국과 밥을 준비해 정화한 시간에 대구역 광장에 나타났다.

메뉴는 배춧국과 제육볶음 그리고 김치와 장아찌 반찬이다. 오전 7시, 배식시간에 맞춰 길게 줄을 선 노숙자들에게 배식하는

어려운 사찰재정 불구 5년간 자비의 공양 실천

불자들의 얼굴엔 부처님의 미소가 가득하고 “맛있게 드세요”라는 한마디 인사가 빠지지 않는다.

“사람은 배고파도 죽지만 정에 그리워도 못사는 법. 노숙자들에게 먼저 웃고 인사하라”는 보성 스님의 가르침 때문이다.

보성 스님과 신도들은 월 37만원의 정 부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이웃 어르신들을 지켜보다가 매일 5만원씩의 생활비를 보조하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노숙자 무료급식을 시작하는 데는 망설임이 많았다. 사찰재정이 빠듯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보성 스님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어느 노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됐다. 숟가락이 10개만 10개만 가져가고 한 줌의 쌀밖에 없으면 그만큼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다.

그러나 시작부터 우여곡절은 많았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35인분 밥솥 2개를 얻고, 절에 있던 쌀을 털어 100인분의 밥을 지어 무료급식을 나가던 날부터 스님과 신도들은 일주일 내내 남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또, 가정용 가스 불에 100인용 국솥을 올려놓다 보니 밤새 국이 끓지 않아 새벽에 작은 솥에 나눠 끓이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쌀이 없어 굶은 적은 없다.

첫 급식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5년의 세월동안 토요일 무료급식을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노숙자는 60여명에서 150여명으로 늘었다. 매주 금요일에는 지역어르신 70여명에게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통사는 첫 무료급식에 나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림을 꾸린다. 예나 지금이나 절에는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 급식에 사용한다.

그러나 이젠 뒷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쌀이 없으면 어떻게든 쌀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두 부처님의 원력이라고 믿는 이들의 신심은 그 어느 불자보다 크고 높았다.

보성 스님은 “6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 바라밀”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데 거ripp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을 못할 때는 신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053)656-5266
글·사진=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18년만에 씨앗 터졌네 포항교사불자회 문집 ‘씨앗’ 발간

포항교사불자회(회장 김숙자)가 창립 18년 만에 문집 <씨앗>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더 큰 미래의 비상을 위해 건장한 청년이 된 포항교사불자회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의미에서 발간한 <씨앗>은 총 286페이지 분량으로 모두 500부가 제작되어 전국교사불자회원들과 신행단체 등에 배부됐다. 포항교사불자회원들의 신심과 정진, 신행활동 등 그간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조용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김숙자(경주교역청 전문상담순회교사) 회장은 “초창기 회원들의 소중한 신행활동이 아귀들이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는 것이 안타까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올려놓았던 회원들의 신행담을 기초로 문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대구 보광원, 만해 선사 시비 건립

대구 수성구 보광원 조실 화산 스님이 젊은 시절 만해 스님을 모셨던 그리움을 담아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과 문화 혼을 기리는 시비를 보광원 경내에 건립하고 11월 23일 제막식을 거행했다.

시비에는 만해 스님이 남긴 시집 <님의 침묵> 제목 가운데 ‘나는 잊고자’의 전문이 서예가 송낙준 선생의 글씨로 새겨졌다.

동화사 주지 허은 스님, 김형철 수성구정장, 광복회대구광역시부 권준호 지부장 등 20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된 제막식에서 화산스님은 만해 스님을 추모하며 직접 지은 시 ‘님의 철학’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이



권대자

대구경북포교사단 명예단장

늦도록 자식이 없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던 부부가 있었다. 소박한 삶을 꾸리며 오직 자식을 원했던 아버지(당시 50세)와 어머니(당시 47세) 무남독녀 외팔로 태어난 권대자 대구경북포교사단 명예단장.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부처님과 인연 지어져서일까? 어릴 때부터 절이 좋았고, 젊은 시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자지송>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였다. 그래서 늘 가방에는 250원짜리 <불자지송>과 300원짜리 합장주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이를 선물했다. 그저 내가 보고 기뻐하니 다른 이들에게도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 인연이 대구지역불교계의 큰 어른이며 큰 보살로 통하는 권 단장을 만들었을 것이다. 뭐든 함께 나누

등을 시작했다. 이 때 비로소 포교가 뭔지 알게 됐다든 권 단장은 <불자지송>과 합장주를 나눠 준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한 도량건립에 나섰다. 대구 불로동에 ‘평화통일 기원정사’를 건립한 것이다. 동화사 신도였던 故최점희 보살의 도움으로 땅을 얻고 10평 남짓한 팔각정 법당을 마련했을 뿐인데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였다. 그래서 이후 권 단장은 불사하는 곳이 있으면 선뜻 회주로 나선다. 불사의 소중함과 어려움을 너무 잘 알기에 급할 때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동참한다. 그리고 청송교도소 화원교도소, 해군 수계법회, 육군 장교부대 등 교도소와 군부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포교와 교화에 힘썼다.

불사 소중함 알기에 대출 받아가며 회주 나서 군부대·교도소 포교 매진... 환경운동도 앞장

려는 천성이 포교사란 이름도 있기 전부터 포교사의 길을 걷게 한 것이다. 평생 포교사로서 군부대와 교도소 포교와 교화에 매진하고, 생활 속의 환경운동을 펼쳐왔다. 또, 불교사회복지회 이사, 한문불교교류협회 이사, 조계종 제9교구 신도회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다방면에서 소리 없는 발취를 남기며 재가불자들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어려운 시절 19세에 결혼해 38세의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일찍이 두 딸의 어머니, 한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짊어지며 살아야 했던 권 단장에게 아침도 굶고 찾아간 산사의 큰 스님들이 밝혀 준 소중한 말씀들이 큰 양식이였다. 경봉, 탄허 스님께 큰 법을 받았다. 석굴암에서는 월산 스님을 뵈고, 송광사 구산 스님도 자주 찾았다. 그러나 불법을 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저 “부처님 제자가 되게,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원력을 세웠을 뿐”이라고 권 단장은 회고했다.

1985년 권 단장 봉선사에서 실시하는 포교사 교육에 참가하면서 정식 포교사로 선발되어 본격적인 불교활동을 시작했다.

1993년 권 단장은 생활 속 환경운동을 펼치며 포교의 전환기를 맞았다. 성타 스님을 이사장으로 하는 (사)대자연환경보전협회를 창립한 것. 권 단장은 이사로 활동하면서 ‘셋강 살리기’, ‘우유팩 수거 및 재활용장기리기’, ‘무공해비누사용하기’ 등의 운동을 펼쳤는데 전국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포교였다.

권 단장의 환경운동은 1996년 환경노래 보급협회(회장 김양희) 창립 회원이며 교문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환경홍보사절단으로 봉사와 음성공양을 하는 비활동가형 권 단장에게 아침도 굶고 찾아간 산사의 큰 스님들이 밝혀 준 소중한 말씀들이 큰 양식이였다. 경봉, 탄허 스님께 큰 법을 받았다. 석굴암에서는 월산 스님을 뵈고, 송광사 구산 스님도 자주 찾았다. 그러나 불법을 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저 “부처님 제자가 되게,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원력을 세웠을 뿐”이라고 권 단장은 회고했다.

1985년 권 단장 봉선사에서 실시하는 포교사 교육에 참가하면서 정식 포교사로 선발되어 본격적인 불교활동을 시작했다.

1993년 권 단장은 생활 속 환경운동을 펼치며 포교의 전환기를 맞았다. 성타 스님을 이사장으로 하는 (사)대자연환경보전협회를 창립한 것. 권 단장은 이사로 활동하면서 ‘셋강 살리기’, ‘우유팩 수거 및 재활용장기리기’, ‘무공해비누사용하기’ 등의 운동을 펼쳤는데 전국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포교였다.

권 단장의 환경운동은 1996년 환경노래 보급협회(회장 김양희) 창립 회원이며 교문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환경홍보사절단으로 봉사와 음성공양을 하는 비활동가형 권 단장에게 아침도 굶고 찾아간 산사의 큰 스님들이 밝혀 준 소중한 말씀들이 큰 양식이였다. 경봉, 탄허 스님께 큰 법을 받았다. 석굴암에서는 월산 스님을 뵈고, 송광사 구산 스님도 자주 찾았다. 그러나 불법을 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저 “부처님 제자가 되게,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원력을 세웠을 뿐”이라고 권 단장은 회고했다.

1985년 권 단장 봉선사에서 실시하는 포교사 교육에 참가하면서 정식 포교사로 선발되어 본격적인 불교활동을 시작했다.

北 어린이들에 따뜻한 겨울을

대구 정토회, 내북 보내기 나눔장터 열어



11월 21일, 대구 정토회관에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내북을 보내기 위해 특별바자회 ‘생명축제 수자타 나눔장터(사진)’가 열렸다.

법륜 스님과 2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150원이 없어 하루 한 끼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물 상영으로 이어졌고, 12명의 례미니유치원 어린이들의 색 내북패션쇼가 펼쳐져 웃음꽃을 피웠다.

정토회는 12월 1일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서 열리는 목요시장에서 한 번 더 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안마

대광맹인회, 원목피해노인들에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이재달)가 11월 22일 경남 합천 원목피해복지회관 안마봉사활동에 나섰다(사진). 눈은 보이지 않

지만 작은 능력이라도 나누며 살기 위해 시작한 봉사활동이 7년째 이어오고 있는 것.

이날 봉사활동에는 25명의 대광맹인불자회원과 대광맹인불자회 자원봉사단인 연꽃봉사단원 등 30여 명이 참가했고, 맹인불자들의 안마봉사활동 후에는 다과회를 겸한 정기자랑시간이 펼쳐졌다.

전문안마사로 활동하고 있는 맹인불자들이 능숙한 솜씨로 어르신들의 불편한 곳을 어루만지며 어르신들의 얼굴엔 이내 화색이 들었다. 이재달 회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www.burec.org

『내가 만드는 겨울불교학교』 제38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부처님 진리를 보다 다양하게 교화시킬 수 있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각 사찰의 불교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실기를 강습하여,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교사 및 법사님, 스님들께 도움을 주고자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하시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일 시 : 불기2550(2006)년 12월 10일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장 소 : 봉은사 보우당 (서울 삼성동 소재) [교통편 안내] 지하철 2호선 삼성역 하차(6번 출구 이용) 도보 10분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주 관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교육내용 : 1) 흥겨운 몸풀기 (싱어롱) 4) 내가 만드는 겨울불교학교
 - 풍선으로 범당 장엄하기
 - 종이로 만드는 놀이감
 - 신나는 겨울놀이
- 참가비 : 35,000원 (도서벽지 및 균등은 참가비의 50%)
- 접 수 : 전화접수 및 인터넷 접수(홈페이지 www.burec.org) 후 온라인 입금
 - 국민 006-01-0801-770 / 신한 324-01-107672 / 농협 053-01-267940
 - [예금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문 의 : 02-738-7860 / Fax : 02-738-7863(본회 사무국)

◆ 서울(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 (법사,교사) 모임 ◆

- 1) 일시 : 2006년 12월 1일 금요일 오후 7시
- 2)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 회비(無), 법회자료집 및 저녁공양 제공
 - * 12월 10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지도자 모임 발대식 봉행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부처님 당시 경전 읽기 한글 니까야 독송회 회원 모집

부처님 당시 생생한 옥성법문을 기록한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읽을 수 있는 법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경전을 이야기 할 때 팔만대장경 또는 아함경(장아함·중아함·중일아함·잡아함)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처님 당시의 경전 언어인 팔리어로 된 5부 니까야(디카니까야·맛지마니까야·쌍욱파니까야·앙굿따라니까야·쿠타카니까야)가 진정한 팔만 대장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알기쉽게 읽을 수 있게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부 니까야를 중심으로 경전을 독송하여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전부 읽는 신행결과를 갖고져 하오니 이런 귀중한 모임에 불자님들의 간절한 동참 바랍니다.

• 입 개 : 2006년 12월 7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법 사 : 전제성, 이미령 교수

• 대 상 : 한글 니까야 독송을 원하는 불자는 누구나

• 특 전 : 청년회원은 월 3만원

• 장 소 : 동산불교회관 3층법당

• 교 개 : 5부 니까야

• 회 비 : 동참회비 월 5만원 (교계계공)

• 문 의 : 02-732-1206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청년회**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